TOPIK을 극복하고 내가 얻은 것　　마에다 아키코　　ミレ参考訳

TOPIK 6급에 수월하게 합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몇 번이고 같은 급수에 머물며 제자리걸음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나도 그런 사람 중 한 명이었다. 몇 번이나 시험을 봐도 같은 5급이고 게다가 점수도 조금씩 떨어진다. 그런 일이 계속되자 점점 자신감도 없어지고 “나에게는 무리인 것 같아”라고 느끼기 시작했다. 한국어 학습 따위는 그만하자고 생각했는데도 아침이 오면 어느새 읽는 연습을 하고 결국 그만두지 못한다. 딜레마에 빠져 있었다. 내 TOPIK 6급까지의 길은 정말 멀었던 것이다. 학습을 계속하고 있어도 전혀 실력이 늘지 않는 듯했다. 그러나 1년에 두 번 단기연수로 한국에 가면 반년 전에는 못 했던 것들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또 말할 수도 있었다.

그렇게 일희일비를 반복하다 보니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야. 이제 합격해야지.” 하고 미적거리는 내 모습에 싫증이 났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다.

“그래! 읽기와 듣기에서 만점을 받으면 되잖아!” 하고. 발목을 잡던 ‘쓰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고민이었는데 다른 영역에서 만점을 받으면 ‘쓰기’는 단 30점만 받으면 된다. 30점이라면 충분히 쓸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기 위해 한 달 정도 시간을 들여서 기출문제 1회분의 스크립트를 전부 다 베껴 썼다. ‘읽기’와 ‘듣기’는 문제를 푼 뒤 소리 내어 읽으면서 쓰다 보니 놀랄 정도로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왔다. 지금까지는 읽기만 하면 다 이해했다고 착각했을 뿐이었다. 정신이 번쩍 들었다. 문제의 ‘쓰기’는 30점이면 된다고 해도 아무 대책도 없이 시험을 보는 것은 무모하다고 생각했다. ‘HOT TOPIK’의 모범 답안을 많이 읽고 나서 정형적인 패턴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 경우 ‘～란’으로 쓰기 시작하면서 글쓰기가 한결 수월해졌다.

그리고 또 하나의 번뜩임은 바로 “한국어 월드를 만들자!”였다. 연수 등으로 한국에 갔을 때는 늘 뉴스를 틀어놓고, 길을 묻거나 주문할 때는 억지로라도 한국어로 다 하려고 한다. 그런데 일본에 있을 때는 숙제나 음독만으로 다 공부한 기분이 들었는데 이러다가는 합격할 리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일일지도 모르지만 ‘한국어 월드’라고 부르며 내 주변은 늘 한국으로 만들자고 생각한 것이다. 예를 들어 전철 아내에서 한국소설을 읽거나 스마트폰으로도 한국어 기사를 읽는 등 다 한국어로 읽는다. 전철에서는 의외로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었다. 심지어는 작문을 쓰고 몰래 음독까지 했다. 이런 식으로 한국어를 접했다. 한국어가 들려오면 귀를 기울이기도 했다.

이렇게 기사회생의 마음으로 TOPIK 시험에 임했다. ‘듣기’는 평소에 1.2배속으로 듣는 연습을 한 덕분에 내용이 귀에 쏙쏙 들어왔다. ‘읽기 연습’은 ‘듣기’ 선택지를 읽을 때도 그 힘을 발휘해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읽기’에서도 다시 확인할 여유까지 생겼다. 그리고 예의 ‘～란’으로 ‘쓰기’ 또한 잘 넘길 수 있었다.

결과는 …… 만점까지는 받지 못했지만 만족스러운 점수로 합격할 수 있었다. 겨우 기나긴 터널을 빠져나온 것 같은 기분이었다. 일본에서는 참고 꾸준히 계속하면 언젠가 성공한다는 뜻의 ‘돌 위에서도 3년’이라는 속담이 있는데, 내가 헤맸던 그 3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다. TOPIK은 단지 어학 시험일 뿐이고 큰 성과라고는 할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이 합격은 나에게 자신감을 가져다주었다. 그것은 한국어 학습에 그치지 않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작은 자신감을 준 큰 한 걸음이 되었다. 어떤 일이든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계속하면 눈에는 보이지 않더라도 착실히 자신의 힘으로 이어져 가는 것이다.